

## 조선왕조실록 밑납본의 보존상태 조사

*Investigation of conservation state on the waxed volumes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鄭小英, 李惠閔, 鄭容在, 洪正基, 嚴斗成

So Young Jeong, Hye Yun Lee, Yong Jae Chung, Jung Ki Hong and Doo Sung Eom

### <ABSTRACT>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authentic record of the historical facts and events taken place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472 years(25 generations, 1392~1863) described in a chronological order. The tremendous volume of the records contains the factual events taken place in almost all the fields of the Joseon Dynasty ranging from politics, economy to history of the dynasty. Not only because of its affluent contents but also with the precision of its records, it was designated as the National Treasure No. 151 in 1973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also registered as the Memory of the World by UNESCO in October 1997.

This study is to report a exhaustive investigation results on the conservation state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Mt. Jeongjoksan edition, under the storage of the Kyujanggak in order to obtain the current condition, and thereby to estimate the any deterioration of the waxed volum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 are going to verify damage causes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o consider scientific conservation methods for the permanent preservation of invaluable cultural heritage.

The major problem with the preservation of annals has arisen particularly from the deterioration of the waxed volumes of the Mt. Jeongjoksan edition. In order to provide for

the counter measures for this problem, we have conducted twice investigations(first : 1998~1999, second : 2003)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waxed volumes (Annals of King Taejo~Annals of King Myeongjong).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has indicated that the paper quality of the some of the waxed volumes (Annals of King Taejong~Annals of King Sejong) is cracked and folded and the pages are imbedded to each other due to the hardened or congealed wax on the paper. Some of the pages are even getting moldy.

And in order to detect as to whether “there has been any deterioration progressed to the waxed books” in the modern storage facility of the Kyujanggak equipped with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ondition, the first investigation(1998~1999) and the second investigation(2003) have recorded the values of acidity, whiteness and moisture rate of the waxed paper, reporting an observation that there has been no difference on the measuring items. This indicates that no virtual deterioration has been progressed so far to the waxed volumes preserved in the Kyujanggak.

Also, except for the causes of deterioration to the paper by insects and microorganisms, the major cause for the paper damage seems to the change of moisture of the paper caused from the alteration of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the storage environment. With this understanding in mind, we have conducted an environmental investigation on the three selected points of the storage in the aspects of the temperature, humidity, air current, CO<sub>2</sub>, HCHO, and SO<sub>2</sub>.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temperature stood at 16.9℃~20.2℃ and the humidity was stable between 53%~56% during the period of the investigation. The concentration of the carbon monoxide and carbon dioxide of the storage were very similar to those in the air. These data lead to presume that there is no problem in the aspect of carbon oxidization. But the concentration of sulfur dioxide, hydrogen sulfide and formaldehyde of the storage were detected a little higher than those of standard. Therefore, we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ventilate the internal air of the store room by means of operating air purification devices.

## I. 서론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조 태조(太祖)로부터 철종(哲宗)까지의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編年體: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하는 역사서술의 한 방식)로 기술한 연대기로서,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전 분야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사료(史料)이며, 특히 풍부하고도 엄밀한 기록과 정밀한 내용보존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1973년 국보 제 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UNESCO)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정족산본 1,181책, 오대산본 27책, 기타산본 21책 등 총 1,229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태백산본 848책은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규장각에 완질로 남아있는 정족산본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도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全州史庫)에서 이어진 것으로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실록의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정통성이 인정되고 있는 자료이다.

본 고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실록의 손상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보존대책을 강구하여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자 보존 상태 및 보존 환경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II.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및 보존관리

### 1.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국가에서 역사책을 편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한 왕조가 멸망한 뒤에 다음 왕조에서 먼저 왕조의 전체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 황제나 왕이 죽은 뒤에 다음 대에서 그 직전의 황제나 왕 때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전자를 전조사(前朝史)라고 하고 후자를 실록(實錄)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25사(二十五

史)와 조선의 정인지 등이 편찬한 고려사(高麗史)는 전조사이고, 중국의 명실록(明實錄)·청실록(淸實錄)과 조선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실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자세한 거질의 편년체 정사(正史)이다.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록이 편찬되어 왔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명실록과 청실록 뿐이다.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국가정책에 관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을 뿐, 조선왕조실록처럼 사회·문화·경제·군사·외교·풍속 등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실록은 왕이 죽으면 다음 왕 때에 편찬하는 것이 통례로서,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 또는 찬수청(纂修廳)을 설치하고 영의정이나 좌·우의정을 총재관(摠裁官)으로, 대제학 및 기타 문장에 뛰어난 사람을 수찬관(修撰官)으로 임명하고, 도청(都廳)과 1·2·3 내지 6방(房)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편찬자료는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 때의 사관(史官)들이 작성해 둔 <사초(史草)>를 기본으로 삼고, 그 밖에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과 후세에는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을 자료로 삼았다. 이상의 기록들이 실록청에 모여지고, 1·2·3 각 방에서 편년체로 초초(初草)를 만들어 도청으로 넘기면, 여기서는 초초를 보완, 수정하여 중초(中草)를 만들었다. 이를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교열하고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만들고, 실록으로 확정·간행하여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 실록의 기본 자료로 특기할 만한 자료는 사관들의 사초이다.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사관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예문관의 봉교(奉敎) 2명, 대교(待敎) 2명, 검열(檢閱) 4명이 전임사관이었다. 이들 전임사관은 직위는 비록 낮았지만 청화(淸華)한 벼슬로 국가의 각종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처리하는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그 잘잘못 및 인물에 대한 비평, 기밀사무 등을 직필하였다. 따라서 사관들의 사초는 비밀을 요하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각자 간직하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출된 사초는 극비성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전제왕권을 가진 왕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초나 초초·중초·정초 등은 모두 물론 그 내용 글귀를 찢어 없었다. 이것을 세초(洗草)라고 하는데, 실록 편찬에 많은 양의 종이가 필요하기에 그 종이를 다시 쓰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초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될 경우 필화 사건 즉, 사화(史禍)가 일어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중 노산군·연산군·광해군 시대의 기록을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 한 것은 세 임금 모두 폐위되어 왕자의 칭호인 군으로 격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산군은 숙종 때 복위되어 숙종 이후에는 《노산군일기》를 《단종실록》으로 개칭하였다. 일기라 해도 내용과 사료적 가치는 실록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선조실록》, 《현종실록》, 《경종실록》이 2종류씩 있는 것은 당파싸움으로 인하여 수정·개수(改修)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종·순종 실록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이왕직(李王職)에서 편찬한 것으로 왜곡된 내용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철종까지의 실록을 의미한다.

## 2. 실록의 봉안(奉安)

편찬이 완료된 실록은 4쪽 보자기에 쓴 후 천궁(川芎)과 창포(菖蒲) 가루를 넣어 방충과 방습이 되게 하여 궤짝에 담았다. 궤짝의 사면에는 경첩이 있고 중앙에는 잠금 장치를 하였으며, 궤짝의 재질은 오동나무, 피나무, 회나무, 소나무 등으로 가볍고 재질이 단단한 목재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궤짝에 담은 후에는 실록 편찬의 책임을 맡은 총재관이 자물쇠를 저주지로 봉하고 봉안한 날짜를 기록하여 임시로 배안상(排案床) 위에 안치하였다. 봉과식을 마치고 배안상에 안치된 실록은 봉안식을 기다려 사고에 봉안하였다.

### 1) 외사고 설치 및 봉안

실록은 서울에 있던 춘추관을 비롯하여 충주·전주·성주 등 지방의 중심지에 분산 보관하였다. 한 지역에 실록을 보관했다가 소실될 경우 영원히 전대의 실록을 복구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춘추관, 충주, 성주의 3대 사고가 소실되고 전주사고본만 화를 면하게 되자 전란 후인 광해군대에는 본격적으로 사고의 산간지역 설치가 논의되어 결국 강화의 마니산(이후 정족산으로 옮겨짐), 경북 봉화의 태백산, 강원 강릉의 오대산, 평안 영변 묘향산에 사고를 설치하고 이곳에 실록을 보관하였다. 묘향산사고는 후금의 침략 위협이 제기되어 다시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산간지역에 사고가 설치됨으로써 보관이나 관리면에서는 큰 불편이 따랐다. 필요한 경우 전대의 실록을 고출(考出)하여 열람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인들은 실록의 기록이 후대에까지 널리 보존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에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산간 오지에 실록을 보관하였던 것이다. 또한 산간 지역에는 대부분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곳에 있는 승려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고려되었다. 정족산 사고의 전등사, 태백산 사고의 각화사, 오대산 사고의 월정사, 적상산 사고의 안국사가 바로 수호사찰에 해당된다.

### 3. 포쇄(曝曬)를 통한 실록의 관리

실록은 봉안한 후에도 수시로 관리를 보내 실록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특히 3년 정도를 주기로 하여 포쇄를 행하였으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지안(形止案)을 만들었다. 형지안이란 어떤 일이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정을 왕이나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인데, 실록이나 선원록을 봉안, 고출, 포쇄한 정황을 기록한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이나 선원록형지안(璿源錄形止案)과 같은 자료는 장서 점검 기록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실록형지안에는 각 사고별로 보관된 서책의 종류와 수량과, 파견된 사관의 명단, 심지어 실록과 함께 넣었던 약품 등이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정기적인 포쇄 작업인데, 포쇄는 책을 바람에 말려 습기를 제거하여 부식 및 충해를 방지시킴으로써 서적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종대 이후에는 춘추관 문서의 경우 3년에 한번씩 포쇄를 행할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포쇄는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습기와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귀쪽에 보관된 실록을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조치로서 포쇄를 위해 반드시 중앙의 사관을 파견하였고 사관은 포쇄에 참여하는 것을 일생의 영예로 생각하였다. 포쇄는 3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행하기도 했지만, 실록을 봉안할 때나 실록의 고출(考出), 이안(移安), 취래(取來), 봉변(奉審), 개장(改裝), 수개(修改) 등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불가피하게 꺼내야 할 경우에도 포쇄하고 점검하기도 하였다.

### Ⅲ. 조선왕조실록 밀납본의 보존 상태 조사

조선왕조실록 중 보존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밀납본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밀납본에 대한 보존 상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상태 조사(1998~1999년)에서는 태조실록~명종실록의 614책을 대상으로 외적 및 내적 상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상태 조사(2003년)에서는 그 중 손상이 심한 131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손상 형태 및 손상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였다.



Photo 1. 실록의 보존상태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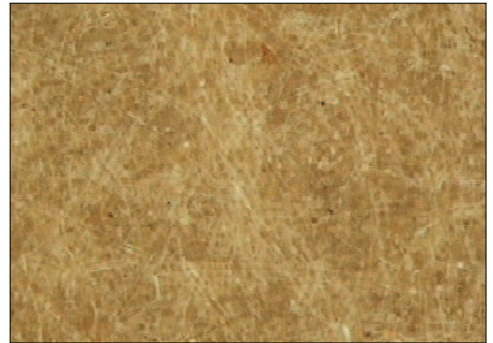
1차 상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614책 중 실록 밀납본은 475책(77.2%)이고, 생지본(生紙本)은 139책(22.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밀납본(태조실록~세종실록)의 경우, 지질이 경화·응고되어 지질이 균열되고 꺾이거나 고착되어 분리가 안 되는 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곰팡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관찰되었다. 2003년에 실시한 2차 상태 조사에서도 이러한 밀납본의 손상 상태는 계속적으로 확인되었다.

밀납본에 나타난 이러한 손상 상태는 밀납이 경화됨에 따라 종이의 유연성이 없어지고 산화에 따라 흑화현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종실록 이후의 밀납본은 대부분의 지면에서 밀납이 제거된 상태였으며 그에 따라 지질의 상태는 대체로 양

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손상된 실록 밑납본의 보존을 위해서는 먼저 밑납제거 처리 후 해체하여 표구·배접하는 보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밑납이 제거된 실록 지질의 표면에서는 섬유소가 현미경상에서 관찰된 반면, 경화·응고가 발생된 밑납지에서는 밑납이 섬유소를 덮은 상태로서 표면에서는 섬유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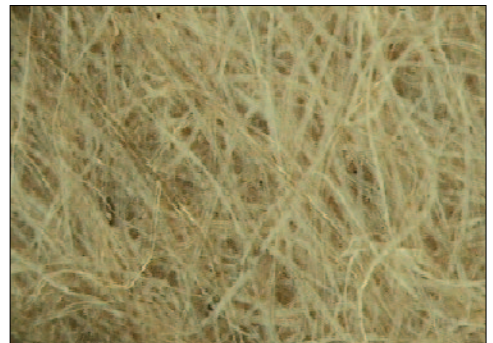
(A)



(B)



(C)



(D)

Photo 2. 조선왕조실록의 손상상태 및 지질의 표면상태

- (A) 세종대왕실록 권 제 106, (B) (A)의 현미경적 상태(200배)  
 (C) 성종대왕실록 권 제 45, (D) (C)의 현미경적 상태(200배)

실록 밑납본의 제작에 관한 문헌적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았지만, 밑납본은 필사 또는 인쇄한 한지를 봉밀(蜂蜜) 용액에 담근 다음 꺼내어 건조시킨 후 반을 접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반으로 접힌 한지 사이에서 봉밀이 용출된 분말 덩어리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질이 서로 밀착된 다음 경화되어 꺾이거나 부스러지는 실록의 손상 현상이 다른 장보다는 주로 동일 장들끼리 고착된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온향습이 조절되는 현재의 보관시설(규장각)에서 “실록 밀납본의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 조사(1998~1999년)에서 측정된 밀납지의 산성도, 백색도 및 함수율값과 2차 조사의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조사항목 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그간 밀납본의 손상이 진행되지 않은 안정한 상태로 보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간격에 비하여 밀납본의 손상속도가 상대적으로 서행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조사가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조선왕조실록 밀납본의 보존상태 조사 항목에 따른 실록별 평균치

조 사 대 상	색 차		색차 값의 차	함 수 율		함수 율차	pH(산성도)		pH차
	1999년 (1차)	2003년 (2차)		1999년 (1차)	2003년 (2차)		1999년 (1차)	2003년 (2차)	
태조실록 1권(총 13권)	34.95	32.54	<b>2.41</b>	8.0	7.3	<b>0.7</b>	5.26	5.12	<b>0.14</b>
태종실록 9권(총 35권)	41.89	40.49	<b>1.36</b>	6.5	7.2	<b>0.7</b>	4.78	4.98	<b>0.20</b>
세종실록 86권(총 154권)	47.29	46.30	<b>0.99</b>	6.3	7.0	<b>0.7</b>	4.94	5.36	<b>0.42</b>
단종실록 2권(총 15권)	48.27	48.16	<b>0.11</b>	7.2	7.3	<b>0.1</b>	5.13	5.55	<b>0.43</b>
세조실록 3권(총 42권)	49.13	47.08	<b>2.05</b>	6.7	7.2	<b>0.5</b>	5.33	5.36	<b>0.03</b>
예종실록 1권(총 5권)	45.93	47.81	<b>1.88</b>	7.7	7.1	<b>0.6</b>	5.44	5.48	<b>0.04</b>
성종실록 11권(총 150권)	42.24	40.95	<b>1.29</b>	7.4	7.4	<b>0</b>	5.48	5.51	<b>0.03</b>
연산군일기 8권(총 46권)	47.55	37.00	<b>10.55</b>	6.0	7.7	<b>1.7</b>	4.67	5.54	<b>0.87</b>
중종실록 9권(총 102권)	38.81	31.18	<b>7.63</b>	6.1	7.6	<b>1.5</b>	5.34	5.81	<b>0.47</b>
명종실록 1권(총 34권)	33.12	25.58	<b>7.54</b>	6.6	7.5	<b>0.9</b>	5.46	6.00	<b>0.54</b>

#### IV. 규장각 수장고의 보존환경 조사

20세기 초까지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및 오대산 등 4대 사고에 각 1부씩 보관되었으나 한일합방 후 1920년 정족산 사고와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으로 옮기고, 적상산 사고의 실록은 장서각으로, 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일본 동경제국대학으로 옮긴 후 관동대지진때 소실되었다. 장서각에 있던 적상산본 실록은 1950년 북한으로 이송되어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태백산본 실록은 1984년 부산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에 이관하고, 정족산본 실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으로 이전되어 보관 중이다. 특히 한일합방시기(1910년~1945년)와 한국전쟁(1950년~1953년) 등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기간동안에는 실록에 대한 보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관만 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정족산본 실록은 1990년부터 향온·향습 시설 및 오동나무 보관장을 갖춘 국보실에 별도 소장되어 있었는데, 온·습도 측정자료(1991년~1999년)를 검토한 결과, 지류유물의 보존에 적합한 조건(온도 : 평균 19℃, 상대습도 : 평균 52%)에서 계속 보존 관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록의 손상 상태 및 훼손 현상은 서울대 부속도서관에서 작성한 조선왕조실록(강화본) 조사표(1967년), 조선왕조실록(오대산본 잔부) 조사표(1972년),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조사표(낙질본, 1972년 6월)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실록의 손상은 그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류유물의 손상은 곤충에 의한 잠식이나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제외하고는 주로 보존환경 내 온·습도 변화에 따른 지질의 함수량 변화에 의해 일어나므로 실록 보관고(규장각 지하 2층 국보보물서고, 면적 : 227m<sup>2</sup>)의 온·습도와 기류, CO<sub>2</sub>, HCHO, SO<sub>2</sub>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3개 지점(A : 서고의 중앙부, B : 서가 내부 및 주변, C : 밀납본 보관서가 내부 및 주변)을 선정하고(Fig.1) 이동이 가능한 자동연속 측정·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기기의 측정항목 및 방법은 Tabl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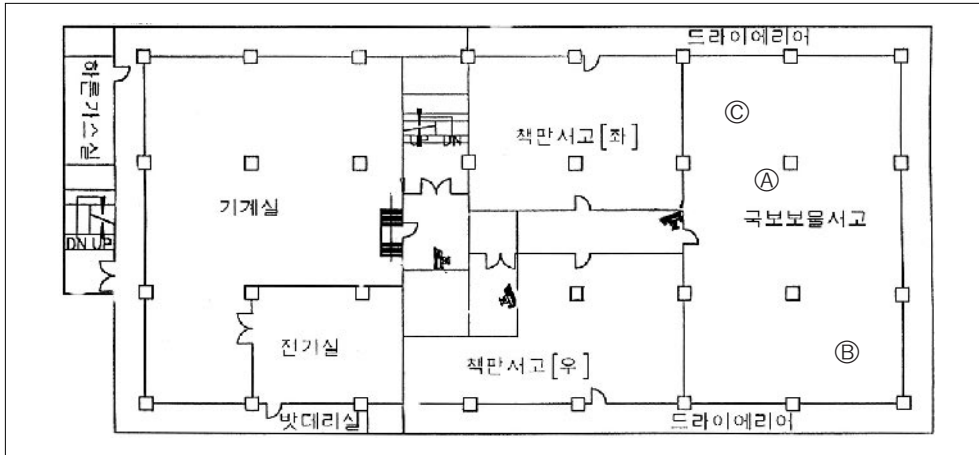


Fig. 1. 규장각 지하 2층 도면 및 조사 지점

Table 2. 조사기기의 측정항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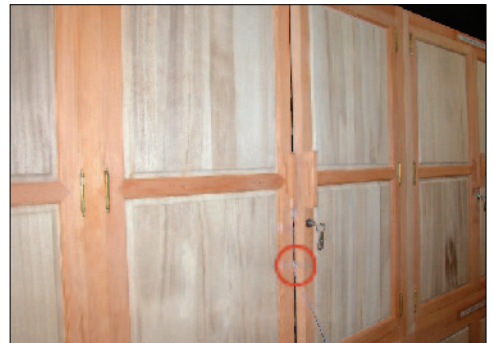
조사기기	측정항목 및 분석방법	측정간격
CASELLA ICS500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 : 백금저항법</li> <li>- 습도 : 전기저항법</li> <li>- 기류 : 열선저항법</li> <li>- CO : 전기화학법</li> <li>- CO<sub>2</sub> : 비분산적외선법</li> </ul>	10분 간격
INNOVA 1312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sub>2</sub>, HCHO, Total HC</li> <li>: Photoacoustic method</li> </ul>	5분 간격
API 200A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NO<sub>2</sub></li> <li>: Chemiluminescent method</li> </ul>	15분 간격

조사기간 동안 보관고 내부의 온도는 16.9~20.2℃, 습도는 53~56%로서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스 상 오염물질의 경우, 대부분 B·C지점(B: 서가 내부 및 주변, C: 밀납본 보관서가 내부 및 주변)의 농도가 A지점(서고 중앙)의 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일산화탄소농도는 1.7~1.8ppm으로 대기 중의 농도(1~2ppm)와 비슷하였고, 이산화탄소농도는 281~359ppm으로 대기 중의 농도(360ppm) 보다 낮게 측정되어 탄소산화물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산

화질소농도는 0.016~0.035ppm, 이산화질소농도는 0.0014~0.0016ppm으로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산화황농도는 0.527~1.162ppm(지하공기질기준인 0.25ppm/hr)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농도는 0.393~0.501ppm(지하공기질기준인 0.1ppm/hr)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총탄화수소농도는 7.038~8.951ppm으로 측정되었다. 이산화황 등 황산화물은 농도가 높아지면 자연 소멸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누적될 경우 오염물질간 상호반응에 의해 수장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오염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등 서고 내부에 대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 조사 지점 A



(B) 조사 지점 C (서가 내부)

Photo 3. 규장각 국보보물서고의 보존환경 조사 지점

## V. 결 론

조선왕조실록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조선왕조실록의 영구 보존을 위해서는 조선왕조실록 보관 수장고의 보존 환경 및 현재의 손상 부위에 대한 보존 방안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밀납본과 같이 지류를 밀납으로 처리한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로서, 일반적인 지류유물의

손상과 달리 실록 밀납본은 한지에 처리한 밀납이 오랜 기간 경화되어 발생된 현상이므로 그에 따른 보존처리 방법도 일반적인 지류유물과는 차이를 두어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질 표면에 처리한 밀납이 실록의 지질을 손상시키는 원인이라고 해도 선부른 밀납 제거처리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밀납 제거처리가 실록의 지질을 부풀게 해서 마모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실험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밀납본과 유사한 상태의 문화재에 관한 보존처리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므로 조선왕조실록 밀납본의 보존을 위한 보존방안 수립은 장기간의 과제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배현숙, 1989, 조선실록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 이성무, 1999,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3.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04, 한국브리태니커회사.